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분석

The Analysis of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 of Preschool and Elementary Children

여주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金星喜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Dept. of Home Economics, Yeoo-joo Technical College

Full-time Lecturer : Sung-Hee, Kim

Consumer Scienc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income allocation structure of private education and child care and to analyze contributing factors income allocation structure of private education and child care for two children among Korean married couples. For these purposes, total sample of 760 married couples those having two children of both pre-school aged and elementary school aged were selected, and total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by first child's school aged; those were pre-school aged(375) and elementary school aged(385). Statistics were frequencies, means, percentile, and Tobit and OLS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268 households among the households those having the first child of pre-school aged spent 11% of income for private education, while 29 households spent 7% of income for child care. 348 households among the households having the first child of elementary school aged spent 11% of income for private education. Second, pre-school aged' contributing factors

to income allocation structure of private education and child care were household family type, family size, home ownership and financial asset amount, and elementary school-aged's factors wer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and financial asset.

1. 문제제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특징은 자녀의 질적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문숙재, 1988).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가계의 노동력으로서 취급되는 투자재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의 자녀는 자녀의 질적 향상을 통해 부모에게 양육의 가치를 전달하는 소비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김성희, 1996).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는 교육 및 자녀양육방법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자녀교육의 유형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가 세분화됨에 따라 특히 사교육비의 지출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늘어 94년도 통계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백 35만원, 중학교 1백53만원, 고등학교 1백76만원, 대학교 2백64만원으로 10년전인 85년도에 비해 2-3배씩 증가하였다(중앙일보, 1997년 3월 13일자).

이와 같은 사교육비의 증가는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는 높은 교육열에 의한 것으로 1996년 처음으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취학률이 60%대를 넘어서는 '고학력 시대'로의 진입, 자녀의 질에 대한 의식변화, 그리고 자녀의 좋은 직장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려는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의식 고취 때문이다(조선일보, 1997년 3월 13일자). 사교육의 형태는 취학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의, 학습지 구독, 방과후 보충수업 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이용할 때 따르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8.1%가 월 평균 30만원 이상으로, 이는 소득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취업모 가계의 양육비를 가구의 소비지출 중에서의 구성비율로 환산하면 식료품비나 교육비보다도 그 규모가 월등히 높으며,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형태를 보면 가족이나 친지,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파출부나 가정부 또는 동네 이웃 등의 유료개별시설, 가정중심의 소집단 보육형태 등의 순으로 이용 비율이 낮아져, 아직까지 혈연관계에 의한 양육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단지 유료 개별보육의 이용이 집단보육시설 내지 소집단 가정보육으로 다소 전환되고 있으나(박정은·윤영숙·서명선, 1994), 아직까지 양육의 형태는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가 경과함에 따라 교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가계소득의 분배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문숙재, 김순미, 김성희, 1996), 교육 및 자녀양육은 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본 투자행동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가계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의 가장 일반적 유형은 자녀의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투자이다(Bryant, 1990; Becker, 1975; Schultz, 1961).

이와 같이 최근 자녀교육 및 자녀양육에 대한 소득분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의 관심도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행동(김성희, 1996),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영향요인(문숙재, 김순미, 김성희, 1996), 사교육비와 교육

문화의식(정영숙, 1997), 자녀양육비(허경옥, 1996)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주부의 취업과 자녀의 출산 및 자녀양육(Blau & Joseph, 1994), 소득과 자녀의 교육기간(Schultz, 1974), 가정유형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차이(Jang, 1995), 교육비 지출비율 및 소득탄력성 결정요인(Huston, 1995, 1996; Abdel-Ghany와 Foster, 1982; Pettis와 Abdel-Ghany, 1981)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공교육비와 달리 사교육비 및 양육비에 대한 소득분배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는 문숙재, 김성희(1995)의 연구에서 초기적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령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총 자녀양육비 중 교육비가 43.0%, 식비 29.3%, 의복비 10.1%, 의료비 7.5%였으며,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위탁양육비 36.1%, 교육비 29.5%, 식비 19.4%, 의복비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지출비목 중 교육비, 위탁양육비 등이 주요한 비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행(1994), 조성숙(1994)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전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의 총소득 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취학전 및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와 위탁양육비에 대한 지출비용을 통해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투자 및 부담 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가족생활주기 초기 단계의 자녀양육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및 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관련 정책마련과 양질의 위탁양육을 위한 영유아 관련 정책수립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출에 대한 관심은 20c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Ogburn, 1919; Dublin과 Lotka, 1946; Edwards, 1981a, 1981b; Espenshade, 1984; Becker, 1975; Deaton과 Muellbauer, 1986; Gronau, 1991; Joerding, 1980; Lino, 1990, 1992, 1994; 김성희, 1996; 허경옥, 1996).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출에는 음식물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 위탁양육비 등이 주로 포함되며(Espenshade, 1984; Lino, 1990, 1992; Olson, 1982; Turchi, 1975; 문숙재·김성희, 1995; 김성희, 1996), 기존 연구들은 양육비에 대한 관심(Lino, 1990, 1992; Turchi, 1975)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Jang, 1995; Huston, 1995, 1996).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상이한데, Rothbarth(1943)는 자녀출생이 성인을 위한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출생전과 출생후의 전체 가계의 지출비를 비교함으로써 자녀출산을 통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 Espenshade(1984)는 Rothbarth(1943)의 측정방법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지출비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계의 생활수준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엔젤의 등가비율의 개념을 응용한 식비지출비율의 자녀양육 측정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미 농무성에서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총양육비에서 자녀수를 나눈 1인당 양육비 또는 평균 양육비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허경옥, 1995).

한편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목 중 사교육비와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 및 주부관련요인, 가족 및 가구관련요인, 그리고 재정관련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교육비 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과 교육비 지출 비율에 대한 Huston(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40세까지는 교육비 비율이 감소하다 40세를 기점으로 67세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며, 그 이후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율에 대

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비 지출 비율은 부적인 관계가 있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와 최승애(1985)는 주부의 연령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문숙재·김성희(1995)는 주부연령이 자녀의 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대상과 교육비 유형에 따라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Michael(1972)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며 지출규모가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에 대한 요구가 낮은 반면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성희, 1996). Huston(1995, 1996)의 교육비 지출 비율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상인 경우 교육비 지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김성희(1996), 문숙재·김성희(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주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한 위탁양육비의 경우 김혜연(1995)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위탁양육비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문숙재·김성희(1995)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이 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Huston(1996)은 전문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교육비의 지출이 더 많았으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농림수산업인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숙재·김성희(1995)는 주부의 직업이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부의 취업유무 및 소득원수는 가족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 및 지출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Espenshade(1984)와 Lazear와 Mihac

(1988)은 취업주부 가정이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자녀와 관련된 지출의 규모가 더 크며, 맞벌이 가계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Lino(1990), Bellante와 Foster(1984), 그리고 김혜연(1995)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중 위탁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취업이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및 미래경제전망 등 주부의 경제적 인식에 대한 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일규(1995)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급기회가 확대되어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투자가 증가한다고 하여, 경제적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위탁자녀양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가족관계만족도가 좋은 경우 부모와 친지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므로 위탁양육비의 지출이 감소할 것이나,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위탁양육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족형태, 가족수, 자녀수가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Huston(1995)의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율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수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양육비의 경우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은 취업여성의 모성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취학전 자녀수가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에 비해 총 소득중 위탁양육비 지출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성희(1996)는 자녀수가 자녀의 교양·교육·오락비 지출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위탁양육비 지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숙재·김성희(1995)의 자녀교육 및 양육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형태가 자녀의 위탁양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Alhabeeb (1995)는 가족크기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지출비는 감소한다고 하여 가족크기가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의 경우,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Jang (1995)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가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하였다. 한편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임대한 가계에 비해 공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지만 사교육비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오락비 지출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주택소유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유형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교육비 지출은 가구주의 월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높은 가구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다는 차성관(1994)과 대우경제연구소(한국경제신문, 1994년 7월 24일)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거주자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적은 가계가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주지역이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Huston(1995)과 Jang(1995)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거주지역이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울, 5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를 비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는 가계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부채소유여부, 그리고 가계생계비지수 등의 재정관련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할수록 증가한다. 김성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교양·교육·오락비 지출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와 정영숙(1996b)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과 교육비 지출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가계생계비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는 가계생계비지수가 낮은 가계는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 자녀의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박정은 외 2인(1994)은 취업주부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위탁양육비 지출이 높다고 하였다. 부채소유여부의 경우 부채가 있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나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소유한 가계는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이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정의 총소득 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비율과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가정의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속변수로는 월평균소득액중에서 과외비, 특별활동비, 학령전 교육비 등의 사교육비와 놀이방, 보모·이웃집 위탁비 등의 위탁양육비의 지출 비율을 고려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재정 관련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때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과거 경제경험 및 미래 경제전망, 가족관계만족을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는 가족수, 가족형태, 소득원수, 주택소유형태, 주거형태, 이웃접촉빈도, 거주지역을 사용하였고, 재정 관련요인에는 금융자산액, 부채소유여부, 가계생계지수를 포함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u>종속변수</u>	
과외비	자녀의 성적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만원)(학원비, 가정교사비, 그룹과외비, 관련교재 구입비)
특별활동비	자녀의 정서함양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월평균지출액(만원)(음악, 미술교육, 신체적 활동을 위한 학원비 등)
학령전 교육비	유아원 및 유치원 교육을 위한 월평균지출액(만원)
기타교육비	기타 제반 지출액(만원)
사교육비	과외비+특별활동비+학령전 교육비+기타교육비(만원)
놀이방비	취학전자녀의 놀이방 위탁비
보모·이웃집위탁비	보모 및 이웃집 위탁비
위탁양육비	놀이방비+보모·이웃집 위탁비용
사교육 및 양육비용	사교육비+위탁양육비
사교육 및 양육비/월소득액	사교육 및 양육비용(만원)/월평균총소득액(만원)
<u>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u>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연령(세)
가구주의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고졸 3=대졸이상
가구주의 직업	1=봉급생활자 0=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비취업 등
주부의 취업유무	1=취업(봉급생활/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 등) 0=비취업 및 주부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년수(년)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주부의 가족관계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u>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u>	
가족수	동거가족수(명)
가족형태	1=핵가족 0=확대가족
소득원수	가족내의 소득원수
주택소유형태	1=자가 0=임대 및 기타
주거형태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0=단독주택
이웃접촉빈도	1=매일 만남 2=2-3에 한 번 3=일주일에 한번
거주지역	1=서울 2=광역시 3=중소도시 및 기타
<u>재정 관련요인</u>	
가계금융자산액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만원) (저축총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총액+계불입총액+사채준 총액)
부채소유여부	1=부채있음 0=부채없음
가계생계비지수	월평균 가계식비지출액/ 월평균 가계지출액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8,567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위해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2,697가계에서 자녀의 주된 활동이 학생이면서 첫 자녀와 둘째 자녀의 학교급별이 취학전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가계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¹⁾ 이때 아동기에 해당되는 취학전과 초등학교 두 자녀로 한정

〈표 2〉 가계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첫자녀연령	취 학 전 (375)		초 등 학 교 (385)	
		빈도	%	빈도	%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72	19.2	93	24.2
		186	49.6	210	54.5
		117	31.2	82	21.3
가구주의 직업 : 봉급생활 자영업/자유업 농림수산업 비정규직/무직		259	69.1	203	52.7
		93	24.8	141	36.6
		5	1.3	12	3.1
		18	4.8	29	7.6
주부의 취업유무: 취업 비취업		38	10.1	65	16.9
		337	89.9	320	83.1
가족형태 : 핵가족 확대가족		338	90.1	348	90.4
		37	9.9	37	9.6
주택소유형태 : 소유 비소유		131	34.9	192	49.9
		244	65.1	193	50.1
거주형태 :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		43	11.5	29	7.5
		332	88.5	356	92.5
이웃접촉빈도 : 매일만남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하		246	65.6	240	62.3
		83	22.1	79	20.5
		46	12.3	66	17.1
거주지역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및 기타		115	30.7	133	34.5
		93	24.8	92	23.9
		167	44.5	160	41.6
부채소유여부 : 있음 없음		200	53.3	197	51.2
		175	46.7	188	48.8
연속형 변수		Mean	S.D.	Mean	S.D.
가구주의 연령		32.91	2.82	37.48	3.19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3.11	0.76	3.20	0.71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3.19	0.58	3.05	0.61
주부의 가족관계만족		3.91	0.74	3.97	0.76
가족수		4.18	0.49	4.15	0.48
소득원수		1.22	0.44	1.28	0.48
가계금융자산액		839.35	820.14	986.60	1159.07
가계생계비지수		0.33	0.14	0.33	0.13

한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자녀수가 1.97명이었기 때문이며(통계청, 1996), 취학전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계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결과 취학전의 경우 양육과 교육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유아원과 유치원의 비용과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속셈, 학원교습, 학습지 구독 등을 사교육비로 보고 취학전과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최종표본은 760가계였으며, 표본가계의 특성을 취학전과 초등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표본가계를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취학전과 초등학교로 구분하였다. 각 표본가계의 구성은 취학전 자녀를 둔 375가계(49.3%)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385가계(50.7%)였다. 첫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전문대졸이상의 비율이 취학전 31.2%, 초등학교 21.3%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인 경우는 취학전 69.1%, 초등학교 52.7%로 첫 자녀의 학교급별이 취학전인 경우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봉급생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유무는 취학전 자녀를 둔 가계 10.1%,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 16.9%로 자녀의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주부의 취업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취학전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웃과 매일 접촉하고 있었으며, 부채소유여부를 보면 두 집단 모두 50%이상의 사람들이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미래경제전망은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이 초등학교 집단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응답을 보여, 젊은 주부가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금융자산액은

초등학교 집단이 취학전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첫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취학전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의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 분석과 OLS분석을 실시하였다. Tobit 분석과 OLS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

월평균소득액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을 세부 항목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취학전 집단의 경우 월평균소득액 중 과외비 지출비율은 0.05로 소득의 5%만을 자녀의 과외비로 지출하며, 전체 표본 중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11가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월평균소득액 중 7%를 자녀의 학과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174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과외비의 지출은 취학전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에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정서적 함양 및 취미활동을 위한 특별

1) 아래와 같이 집단을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터울이 3-4년이기 때문이다(통계청, 1995).

출생순위	학교급별	취 학 전	초 등 학 교
	첫 째 자 녀	취 학 전	초 등 학 교
둘 째 자 녀	취 학 전	초등학교 또는 취학전	

활동비의 지출은 취학전 집단의 경우 68가계가 월평균소득액의 1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집단은 215가구가 소득의 9%를 특별활동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자녀의 특기 지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중 과외비와 예·체능교습비를 생활주기에 따라 비교한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 취학전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의 월 평균 예·체능교습비 지출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단순 지출액과 소득액중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본 연구와의 측정방법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령전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집단의 경우 208가계가 소득의 8%,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99가계가 소득의 5%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학전 집단의 경우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수는 학령전 교육비, 특별활동비, 기타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액중의 지출비율은 특별활동비, 학령전 교육비, 과외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집단에 있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수와 월평균소득액중 사교육을 위한 지출비율 모두 특별활동

비, 과외비, 학령전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위탁양육과 관련된 놀이방비 및 보모나 이웃에게 자녀를 위탁하는데 소비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놀이방비의 경우 취학전 자녀를 둔 18가계가 월평균소득액의 5%를 놀이방비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낮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4가계만이 월평균소득액의 9%를 놀이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숙재·김성희(1995)와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의 연구결과에 비해 지출의 정도가 낮은 것이다. 자녀를 보모나 이웃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보모·이웃비용의 경우 취학전 자녀를 둔 13가구가 월평균소득액의 8%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는 4가계만이 월평균소득액의 4%를 지출하고 있었다. 취학전 집단의 경우 놀이방비의 지출보다 보모·이웃비용의 지출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 돌보기를 위해 더 많은 손길이 요구되므로 위탁비용이 낮은 집단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위탁비용이 많이 드는 보모·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표 3〉 두자녀 가정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 구성

교육비구성	취 학 전 (375)		초 등 학 교 (385)			
	f	Mean	S.D.	f	Mean	S.D.
과외비 / 총소득액	11	0.05	0.05	174	0.07	0.06
특별활동비 / 총소득액	68	0.13	0.80	215	0.09	0.41
학령전교육비 / 총소득액	208	0.08	0.25	99	0.05	0.03
기타교육비 / 총소득액	59	0.03	0.04	49	0.03	0.03
놀이방비 / 총소득액	18	0.05	0.03	4	0.09	0.06
보모·이웃비용 / 총소득액	13	0.08	0.05	4	0.04	0.02
사교육비 / 총소득액	268	0.11	0.54	348	0.11	0.32
위탁양육비 / 총소득액	29	0.07	0.05	8	0.07	0.05
사교육 및 위탁양육비 / 총소득액	272	0.11	0.54	349	0.11	0.32

놀이방비의 지출비율이 보모·이웃비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 명 둔 가계의 경우 시간제 위탁이 가능하며, 첫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 저학년의 또는 취학전 자녀의 보살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자녀가 취학전 집단에 비해 월평균소득액중 보모·이웃비용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가 취학전 집단의 경우 29가구 그리고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8가구에 불과한 것은 본 연구의 표본중 취업주부의 비율이 10% 정도이며, 이중 자녀를 부모나 친지에게 맡기는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학전 자녀를 둔 집단중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272가구이며, 월평균소득액중 11%인 18만원 정도를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로 지출하였다.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349가구로 전체 가계의 90.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월평균소득액의 11%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취학전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위탁양육비의 지출에 비해 그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의 특기교육 및 학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를 위해 사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 비율은 취학전 집단과 유사하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기 자녀를 둔 가계의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때,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Tobit 분석²⁾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집단은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자녀가 취학전 집단의 경우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가족형태, 가족수, 주택소유형태, 가계금융자산액 등이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주부의 과거경제경험과 미래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택소유형태가 임대 및 기타의 경우, 가계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월평균소득액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과거경제경험과 미래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월평균소득액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위기가 낮으며, 미래의 경제생활은 더욱 여유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생활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자녀의 미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비 지출에 월소득액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편모가정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복지감과 생활의 안정감에 기여하는 소득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Jang(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에 비해 핵가족인 경우,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대가족의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많은 부분을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므로,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액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Huston(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Alhabeeb(1995)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2)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375가계로서, 그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268가계였다. 따라서 취학전 집단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Tobit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집단은 385가계이며 이중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349가계이므로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해 임대 및 기타의 경우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주택마련이 어렵고 주택마련을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택마련보다는 자녀의 미래소득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사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자녀를 위한 교육비의 지출이 많다는 Jang(1995)과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

〈표 4〉 월평균 가계소득액에서 사교육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Tobit 및 OLS 분석결과

변수	표본가계	취학전 자녀를 둔 가계 (375)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 (385)	
		Estimate	Std. err.	Estimate	Std. err.
가구주 및 주부관련요인					
가구주의 연령		0.012	0.011	0.000	0.001
가구주의 교육수준(전문대이상)					
중졸이하		-0.154	0.089	-0.009	0.013
고졸		0.009	0.071	-0.018	0.011
가구주의 직업(봉급생활)		0.082	0.067	-0.000	0.009
주부의 취업유무(취업)		-0.105	0.118	-0.022	0.013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0.090*	0.042	0.005	0.007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0.113*	0.057	-0.010	0.008
주부의 가족관계만족		0.022	0.042	-0.012*	0.006
가족 및 가구관련요인					
가족형태(핵가족)		0.499**	0.171	-0.000	0.024
가족수		-0.321**	0.114	-0.020	0.016
소득원수		-0.045	0.088	-0.000	0.011
주택소유형태(소유)		-0.178**	0.069	0.005	0.009
주거형태(단독주택)		0.132	0.097	-0.004	0.016
이웃접촉(일주일)					
매일 만남		-0.107	0.094	-0.017	0.012
2-3일에 한번		-0.075	0.105	-0.000	0.014
거주지역(중소도시/기타)					
서울		-0.093	0.075	0.005	0.010
광역시		-0.067	0.078	-0.012	0.011
재정관련요인					
가계금융자산액		0.000***	0.000	-0.000***	0.000
부채보유여부(부채있음)		-0.030	0.063	-0.001	0.008
가계생계비지수		-0.018	0.227	-0.029	0.034
Intercept		0.382		0.279*	
F-ratio				1.638*	
R square				0.1085	
Log likelihood		-244.086			

* < .05 ** < .01 *** < .001

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이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에 대한 투자기회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량이 증가한다는 박일규(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정영숙(1996b)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첫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계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위한 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액중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부모나 친지에게 위탁하기보다는 시설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금융자산액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가계금융자산액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액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불안한 가구가 자녀의 인적자본투자를 위해 더 많은 소득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재정적 불안 및 불안한 미래를 자녀에게 대물림시키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나,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위탁양육비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다는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취학전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위탁양육의 경우 이웃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주부의 취업유무, 가계의 재정상태 및 가족관

계 등을 기준으로 위탁양육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교육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이웃이나 주위 친구들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사교육의 형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영향력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결과와 달리 가계생계비지수가 두 집단 모두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취학전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에서의 자녀 교육과 양육은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계의 생활수준을 막론하고 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가족 및 가구관련요인은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를 위한 소득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구주 및 주부관련요인 중에서 위탁양육형태의 결정과 관련된 주부의 가족관계만족과 재정관련요인중에서 가계금융자산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정의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부부와 첫 자녀의 연령이 취학전 및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두명의 자녀로 구성된 76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총소득에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을 보면, 취학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월평균소득액중 자녀의 특별활동비를 위한 지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령전교육비, 보모·이웃비용, 과외비, 놀이방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및 위탁양

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수는 학령전교육비, 특별활동비, 기타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학전 집단의 경우 총소득 중 학령전교육비와 특별활동비를 위한 지출비율이 가장 많으므로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 및 월평균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야기시켜 가계의 부담이 되는 특기교육을 유치원 교육으로 확대 포함시키는 교육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특별활동비, 과외비, 학령전교육비의 순으로 지출비율과 지출하는 가구수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가계는 주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 시기에 자녀의 특기교육이 주로 이루어짐을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비해 소득분배의 정도는 작으나 과외비의 지출이 월평균소득액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입시위주의 지나친 교육열이 초등학교에 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때부터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를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계획 및 개별 가계의 재무계획이 요구되며, 초등학교의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조정하는 영어, 산수, 컴퓨터 영역의 교육을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여 초등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탁양육비의 경우 취학전 집단에서는 자녀양육을 부모나 이웃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놀이방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놀이방에 위탁하는 경우가 부모나 이웃에게 위탁하는 경우보다 지출 비율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부모나 이웃에게 위탁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자녀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비용이 놀이방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학전 집단이나 초등학교 집단 모두에서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수가 적은 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상 취업주부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업주부 중에서도 위탁여건의 열악성 및 위탁비용의 과중함 등을 이유로 자녀양육을 부모나 친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박정은·

윤영숙·서명선, 1994). 그러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위탁양육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복지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과 국가가 양육비용을 가계와 함께 부담하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취학전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에 대한 소득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가족형태, 가족수, 주택소유형태, 가계금융자산액 등이었다. 주부의 과거경제경험과 미래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의 지출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 자녀를 위한 소득분배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양질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가계금융자산액이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취학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유치원 취학률은 41.9%에 머물러 OECD 평균인 70%를 훨씬 밑돌아 유치원 교육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중앙일보, 1997년 3월 13일자), 이는 유치원 교육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가계의 경우 유치원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학전 교육을 국가, 사회, 가계가 함께 이끌어 가는 교육정책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주부가 인식하는 가족관계 만족과 가계금융자산액이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이중 가계금융자산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므로 계층간 불평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가계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교육제도 마련과 위탁양육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즉 재정상태가 나쁜 가계의 자녀가 주부의 노동시간 동안 가정에서 방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구나 단위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등의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자녀를 둔 가계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마련을 위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및 각 가계의 재정상태에 적합한 교육정책 수립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에 대한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막내자녀연령, 자녀성별, 출생순위 등과 같은 자녀관련변수와 주부의 취업관련변수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위탁양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교육비와 위탁양육비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 총소득에서 사교육비와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주부의 취업유무, 금융자산액, 가계생계비지수, 이웃과의 접촉빈도 등과 같은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기 자녀를 둔 가계에 적합한 총소득에서 사교육비와 위탁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론,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사교육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양육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행(1994). 강남 서초 송파지역 과외비 실태조사. [월간중앙] 1994년 10월호. 592-593.
- 3)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4)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5)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3.
- 6)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4). 취업여성의 모성 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7) 윤희은(1996). 자녀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8)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1). 1-14.
- 9) _____(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10) 조성숙(1994).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제4회 심포지움, 43-95.
- 11)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12) 허경옥(1995).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6(1). 1-20.
- 13) Abdel Ghany, M & Foster, A.C.(1982).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21), 21-28.
- 14) Abdel Ghany, M. &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 Economic Issues*, 14, 299-315.
- 15) Alhabeeb, M.J.(1995). Parental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69-70.
- 16) Becker, G.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17) Bryant,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 Huston, S.J.(1995).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s Ratio: Explo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51-56.
- 19) _____, S.J.(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20) Jang, Y.G.(1995). Expenditures on education for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45-50.
- 21) Lino, M.(1990). Expenditures on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22) Moon, S.J. & Kim, S.H.(1997). Education Expenditure Patterns for Children of Korea Married Couples. *Proceedings of the 2nd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212-214.
- 23) Park, S.Y. & Chiu-Fui Joyce Mok(1995). Child-care Expenditures of Households:Tobit Analysis for Different family Type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193-198.
- 24) Schultz, T.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